UNIVERSITY OF ULSAN COLLEGE OF MEDICINE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소식지

November of 2015
Vol. 08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소식지 **발행인** 송재관 **편집인** 임영석 **주소**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3길 88 **TEL** 02-3010-4207~19 **Fax** 02-3010-4240 **Homepage** http://www.medulsan.ac.kr

02 [인터뷰] "동북아시대 중심병원 거듭나겠다" **04 [기획기사]** 우리 의대 중개연구 역량 강화 추진…대학원 의과학과 신설
06 [이달의 우수연구] 위암세포 자살 유도 새 단백질 발견…암 치료제 개발 길 열어 **06** 미니인터뷰 | 최경철 교수 **07 [특별기고]** 마지막 인턴 세대
08 [교과탐방] 응급의학과 교육엔 특별한 무엇이 있다 **09** 미니인터뷰 | 응급의학과 손창환 교수 **10 [의대소식]** 의학과 3학년 졸업여행"추억을 만들다"
10 의학과 4학년 학부모 간담회 개최 **11 [건강컬럼]** 심혈관 질환 : 일교차 커지면 주의해야 **12 [학생코너]** 들어는 보았나? '의림제'… 올해는 '의림맨'
15 [의대소식] 2016학년도 의예과 수시모집 경쟁률 전년대비 증가 **15** 우리 의대,'전임교원 1인당 교내 연구비'1위 기록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UNIVERSITY OF ULSAN COLLEGE OF MEDICINE

인터뷰

"동북아시대 중심병원 거듭나겠다"

김인구 강릉아산병원장 … 교육 다양화 방안 등도 제시

어느 휴양지 명품호텔에서나 볼 수 있는 아름다운 풍경과 수도권에 버금가는 의료시스템, 친절한 서비스가 함께 하는 병원이 있다. 주인공은 바로 강릉아산병원이다.

지난 1996년 개원 이후 아름다운 의료문화를 만들어가는 모델병원으로 명품병원이라고 할 수 있는 강릉아산병원을 이끌고 있는 김인구 병원장을 만나 병원의 현황과 교육을 받고 있는 우리 의대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담아보았다.

❖ 임기 중 최대 성과 '신관 신축'

김 원장은 임기 중 최대 성과로 신관 신축을 꼽았다.

실제 신관 신축 및 병동 이전 등을 통해 병원분위기가 변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원장은 "스텝들이 기존보다 더욱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환자들도 병동을 옮기고 난 후 기존보다 안정을 찾고 전체적인 행동 및 반응들이 우아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신관 신축 및 본관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이유로 우선 본관의 열악한 외래환경의 개선과 점증하는 외래환자와 입원환자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앞으로 다가올 통일 후를 대비하는 차원이다.

김 원장은 "이를 기반으로 동북아시아의 중심병원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강조하였다.

❖ 강릉아산병원, 고품질 · 고품격 의료서비스 제공 추진

그동안 강릉아산병원은 신장췌장동시이식, 400그램 미숙아치료 등 다양한 치료성과 등과 함께 병원규모나 진료실적 등의 면에서는 이미 상급종합병원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장기기증원과의 협약으로 뇌사자이식 등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올해 영동지역을 대표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어 리모델링도 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신관에 국제규격에 맞는 조혈모세포이식을 위한 Class 100 1인실 2개와 Class 1000 2인실 1개의 병실을 마련, 준비중이다.

기존 심혈관센터와 소화기병센터는 더욱 장비와 인력을 보강하여 확장중이고, 심혈관검사실도 기존보다 2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 신관에서 운영중이다.

또 심혈관조영술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 운영하며, 새로운 심혈관조영기계도 추가로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암센터의 경우 신규로 최고성능 치료기를 약 100억원을 투자하여 추가로 구입한다는 계획이며, 근접치료기도 가동한다는 생각이다.

김 원장은 "이렇게 되면 방사선치료를 받으려는 모든 환자를 수용할 수 있게 되며, 수도권 등의 환자도 홍보를 통해 유치할 계획이다"며 "관절센터는 향후 의료진 구성과 장비가 마련되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KTX나 제 2영동고속도로 등의 개통으로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좋아지고, 병원 주변의 좋은 자연환경 등으로 인해 함께 일하고 싶어하는 의료진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상급종합병원 신청 등도 추진하여, 고품질 · 고품격 의료를 통해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교육의 다양성 및 필요성 강조

의대생들의 다양한 교육에 대한 필요성도 제시하였다.

서울아산병원과 같은 대형병원에서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소위 빅5병원을 제외한 강릉아산병원 같은 일반적인 종합병원 규모의 교육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의사가 된 후 대부분이 일반적인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하게 되고, 강릉아산병원의 경우 의과대학교육평가에서도 우수한 평가등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의대와 더욱 협력하여 교육을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제 연수에 대한 의견도 제시하였다.

김인구 병원장은 "미국, 영국 등 선진국 의대에서 연수교육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도, 방글라데시 등 저(중)개발국의 의대에서도 연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즉 "좋은 곳에서 발전된 모습을 보는 것도 좋겠지만 하루에 1달러로 사는 것도 봐야 한다"며 "배울 곳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의대 시절 최대한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김 원장은 "의사생활을 하다 보면 다양한 직군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진료시 다양한 직업에 대한 이해를 폭넓게 하면 치료 및 이해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최대한 많은 경험을 통해 사람 및 직업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 훌륭한 의사가 되기 위한 3가지 요건

훌륭한 의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부분으로는 '인성, 실력, 배려'를 꼽았다.

즉 올바른 인성이 있어야 환자를 아끼고 배려하고, 이해한 후 환자를 치료해야 하며, 실력이 있는 의사가 되어야 실수 등을 하지 않고, 정확한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자신에 대한 배려, 동료에 대한 배려, 선후배간의 배려, 주변직원과 환자 등에 대한 배려 등이 있어야 의료사회의 불신과 오해를 없애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선택 및 병원선택에 대한 노하우도 제시하였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소신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전처럼 의사가 수입이 많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자신이 무엇을 하면 보람있고, 즐거울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장기적으로는 오늘의 인기과가 내일은 비인기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가장 좋아하고 해보고 싶은 일을 하는게 훨씬 보람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김 원장은 "자신의 인생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현재 유행하는 과를 선택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판단도 필요하다"며 "가장 현명한 것은 자신이 가장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다"고 강조하였다. 또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본인의 끝없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 내년 병원 개원 20주년
… 최고의 병원 발전 추진

우리 의대 초창기 학장보를 역임하면서 초기 교육기반을 다졌던 김 원장은 의대에 대한 남다른 애정도 드러내었다.

김 원장은 "우리 의대가 초창기보다 많은 발전이 이어지고 있어 기쁘다"며 "좋은 학교란 좋은 학생들이 있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의대 학생들은 갈수록 더욱 좋은 학생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 기쁘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도 적극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하였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강릉아산병원에 지금보다 우리 의대 출신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제시하였다.

김 원장은 "지난 1996년 병원 개원이후 내년에 20주년을 맞이하게 된다"며 "'많은 환자들이 치료받고 싶어하는 병원' '의사, 간호사 등 병원 종사자들이 근무하고 싶어하는 병원' '지역 주민들은 물론 더 나아가 많은 국민들이 꼭 한번 방문해 보고 싶은 병원' 같은 좋은 병원으로 발전해 가도록 꾸준히 노력을 하겠다"고 다짐하였다.

의대 주요일정

2015년

11월 14일(토) | 2016학년도 의예과 수시모집 논술고사

11월 18일(수) | 교수세미나(울산)

11월 25일(수) | 교수세미나(강릉)

12월 7일(월) | 교수세미나(서울)

12월 18일(금) | 의예과 2학년, 의학과 1학년 종강

12월 21일(월) | 의학과 2학년 의학연구실습과정 학생학술대회

12월 23일(수) | 의학과 2학년 종강

12월 31일(목) | 의과대학 종무식

2016년

1월 4일(월) | 의과대학 시무식

1월 8일(금) | 의학과 3학년 종강

1월 7일(목)~8일(금) | 의사국가고시

1월 11일(월) | 졸업생 사은회(예정)

기획기사

우리 의대 중개연구 역량 강화 추진…대학원 의과학과 신설

U-BEST 프로그램을 통한 경쟁력 강화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풍납동의 중개연구 역량 강화 및 인력 수급의 자체 선순환 구조를 확보하고자 대학원에 의과학과를 신설한다.

중개연구란 기초학문을 통해 축적된 지식을 실재 질병 치료에 적용하기 위한 과정의 연구를 일컫는다. 따라서 중개연구라 하면 질병 중심의, 적용 가능한 실용적인 연구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런 특성으로 외국의 예를 봐도 중개연구는 주로 유수의 의과대학이나 의료기관들을 필두로 하여 진행되고 있다.

❖ 시대적 요구에 따른 중개연구수행 연구인력 양성 추진

문제는 서울아산병원의 임상역량에 비해 우리 대학의 중개연구 수준은 다소 떨어지는 게 사실이며, 최근 이런 간극을 메꾸고자 아산생명과학연구원을 통한 꾸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연구 인프라에 대한 병원의 과감한 투자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중개연구를 수행할 우수한 역량의 연구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다.

외부로부터 영입한 인력에만 의존하는 연구는 단기간의 성과 창출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지속적인 성장과 꾸준한 성과를 위해선 좋은 제도와 훌륭한 인프라를 통해 잘 키워 배출한 인재가 다시 미래 풍납동의 연구를 이끌 주역이 되는 자체 선순환구조의 구축이 필요하다.

김승후 기획부학장은 "여기에 대학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정부 차원에서도 BK21 plus 사업을 통해 최우수 대학원 육성을 위한 대학원생 연구 장학금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대학원의 경쟁력이 곧 대학의 경쟁력이고, 나아가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인식에서 석박사급 창의인재를 양성하자는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이다.

김승후 부학장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외부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고자 대학에선 새로운 대학원과를 개설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운영 제도를 마련, 시행하고자 한다"며, 새롭게 개설될 대학원 의과학과의 목표와 운영계획 등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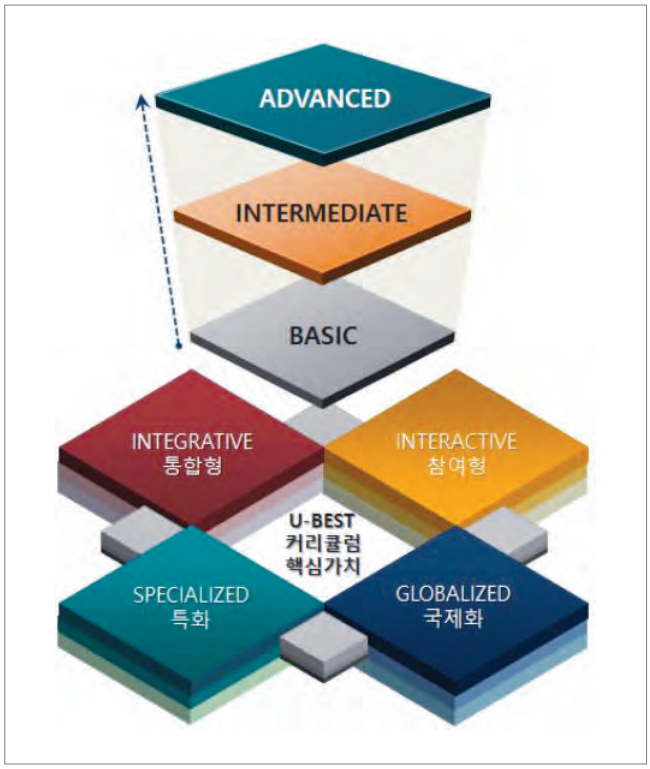
❖ 대학원 의과학과 신설…3대 이유

의학 석박사 양성 과정과 독립적으로 이학 석박사 양성을

목적으로 의과학과란 새로운 대학원과를 개설하고 그 아래 의과학전공, 중개의학전공, 그리고 의공학전공을 개설한다는 계획이다.

별도의 과를 신설하는 이유는 과 운영과 평가방식에 차별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독자적인 운영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또 정부가 운영하는 BK 사업은 대학원 과 단위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어 BK 사업 수주를 위한 목적도 있다.



❖ 대학원 의과학과 교육 커리큘럼 : U-BEST(UUCM-Biomedical Education and Scientist Training)

신설 의과학과 교과과정의 특징은 특화, 통합, 참여 그리고 국제화이다.

기초-융합-실무로 구분되는 수준별, 단계별로 특화된 교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초와 임상교수들이 공동지도교수제를 통해 질환 중심의 통합 강좌를 개설 운영한다.

또 교수, 학생간 직접적인 교류를 위한 일대일, 참여형 토론 강좌를 확충 운영한다.

특히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영어강좌를 늘리고, 학위를 위한 영어 논문 발표를 필수로 하며 졸업 요건을 강화한다.

❖ 의과학과 연구 인센티브제도 시행

의과학과 운영의 핵심으로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평가시스템을 통해 교수님들의 경쟁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업적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한다.

의과학과 소속 참여교수는 최근 연구업적(논문, 연구비)과 대학원 교과과정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선발하며 매년 평가를 통해 탈락과 재진입이 가능하도록 개방형으로 운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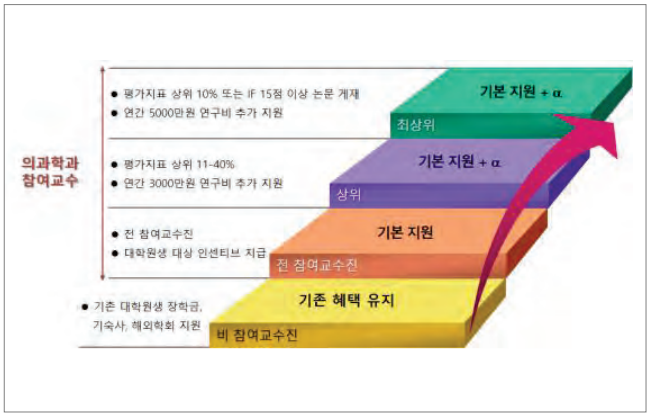
선발된 참여교수에게는 대학원생 인건비를 포함하여 업적 정도에 따라 연구비를 추가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매년 인센티브 지급 대상을 정하는 업적 평가 항목은 최근 2년간 교신저자 논문IF(인용지수)와 편수, 외부 연구비 수주 실적, 특허 및 기술이전 실적, 대학원생 연구 실적(논문, 학회 발표), 그리고 대학원 교과과정 기여도의 6개로 각 항목별 객관적 지표를 마련하였다.

김승후 부학장은 "이는 업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써 대학원 발전을 위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고 설명하였다.

❖ 우수 박사장학생 집중 지원 제도 운영

국내외 석사 졸업생을 대상으로 소정의 선발과정을 통해 잠재력 있는 박사 학생을 선발하여 다방면의 지원책을 통해 집중 육성하는 제도이다.



지원 범위는 등록금 면제, 기숙사 무상제공 등의 기본 지원 외에 해외 학회 참석과 단기 연수 지원 그리고 졸업 후 이어지는 외국에서의 박사후 과정에 대한 지원도 포함되어 있다.

지원에 대한 의무 준수 사항이 있으며, 선발과정도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외부 인사를 포함하는 별도의 선발위원회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 궁극적인 목표 "우수한 중개연구인력 양성"

신설 의과학과를 통한 단기간의 목표는 BK 사업 수주이며, 궁극적인 목표는 경쟁력있는 대학원 과정을 통해 풍납동의 미래 연구를 책임질 우수한 중개연구인력을 양성하는데 있다.

대학원생의 수준이 곧 풍납동 연구의 시금석이며 대학원의 경쟁력은 학생과 교과과정 그리고 교수들의 연구수준으로 결정된다는 신념에서 준비한 대학원 발전 방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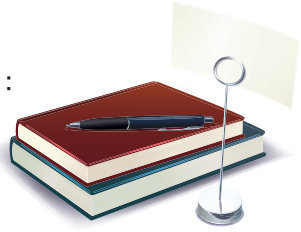
김승후 부학장은"대학원 의과학과 신설 및 운영을 위해 여러 분들께 자문을 구하고 유수의 기관들을 대상으로 벤치마킹도 하고 있다"며 "대학원 의과학과의 안정적인 정착과 발전적인 미래를 위해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 그리고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또 "끝으로 대학이 준비한 대학원 발전 방안에 대해 서울아산병원과 아산재단의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투고를 기다립니다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소식지에서는 울산의대와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투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울산의대의 발전방향, 잘하는 점, 개선할 점 등 울산의대와 관련된 내용 중 소식지에 게재됐으면 하는 내용이 있으시면 투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택된 내용은 소식지에 게재되며, 소정의 기념품이나 원고료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기타 문의 및 투고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소식지 :
객원기자 김영신
(uucmnews@daum.net,
010-3320-2624)



이달의 우수연구

위암세포 자살 유도 새 단백질 발견…암 치료제 개발 길 열어

p53 활성화시 위암세포서 종양 자라는 것 효과적 막을 수 있다는 것도 입증

우리 의대 연구진이 중심이 되어 암세포를 자살에 이르게 하는 새로운 세포사멸유도단백질(PDCD5)의 기능을 밝혀, 암세포를 효과적으로 없앨 수 있는 길을 열어 눈길을 모았다.

우리 의대 최경철 교수와 연세의대 윤호근 교수가 주도한 이번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기초연구사업(중견연구자지원, 선도연구센터지원) 및 대통령 Post-Doc 펠로우십 지원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연구결과는 생물학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Nature communications) 6월 16일자(한국시각 6월17일) 온라인 판에 'Programmed cell death 5 mediates HDAC3 decay to promote genotoxic stress response' 라는 제목으로 게재되었다.

항암치료는 보통 세포사멸(Apoptosis)을 유도하는 방법을 쓴다. 'p53' 은 세포사멸을 유도하여 암을 없애는 대표적인 단백질이다.

교수팀이 7년간 암세포 사멸에 관여하는 단백질과 유전자 발현 변화를 측정 · 분석한 결과, 암세포 사멸유도 단백질 'PDCD5' 가 p53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HDAC3의 기능을 잃게 하는 것을 새롭게 발견하였다.

또 위암환자들에게 PDCD5가 적게 나타날 경우 생존율이 크게 떨어진다는 것을 확인하고, PDCD5를 통해 p53을 활성화하면 위암세포에서 종양이 자라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것도 입증하였다.

이번 연구책임자인 최경철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암세포 사멸 억제능을 가진 HDAC3의 기능조절에 관한 분자기전을 규명했다는 점 ▲암세포사멸과 성장억제를 유도하는 종양억제자 PDCD5의 새로운 기능 및 분자기전을 규명했다는 점이다"며 앞으로 ▲항암제와 세포사멸자극에 의해 활성화되는 PDCD5를 표적으로 한 암 치료의 새로운 치료기술과 치료제 개발 ▲항암제 저항성 극복 전략으로서 HDAC3의 선택적 저해제 개발 가능성 등도 제시하였다.

미니인터뷰 | 최경철 교수

"신진연구자들도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는 연구하면 좋은 결실 기대"

최경철 교수
(의생명과학교실)

❖ 이번 연구 실용화를 위한 과제는?

항암제 저항성 극복을 위한 HDAC3를 표적기전으로 하는 실용화 개발 계획이 이 과제의 핵심 목표이다. 암세포 사멸을 유도할 수 있는 HDAC3 선택적 저해제 발굴 및 개발 시스템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실용화까지 필요한 시간은?

이번 연구결과는 암 치료 및 항암제 저항성 극복의 새로운 분자기전과 치료 표적을 제시하는 기초연구이므로 분자기전에 따른 치료제 후보물질 발굴과 임상 연구 진행으로부터 실용화 소요시간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이번 연구를 시작하여 마무리하기까지 7년이란 시간이 걸렸다.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장기간 연구에 있어 동일 품질 항체의 지속적인 공급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던 사건이다.

긴 연구기간 중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이번 연구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HDAC3의 카르복실기 절단을 인지할 수 있는 항체를 제작하여 판매하던 회사가 다른 큰 기업으로 인수합병 되면서 제품의 품질이 나빠졌다.

당시 시판되는 항체들을 모두 구입하여 확인하였지만 결과는 모두 비관적이었다.

결국 항체를 제작하였고, 상당한 시간을 소모하게 되었다.

❖ 꼭 이루고 싶은 목표는?

후성유전학 관점에서 암세포 사멸 유도의 새로운 분자기전 연

구를 통한 항암제 저항성 암세포의 사멸 및 성장억제 치료기술 개발을 위해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과 논리적인 정보를 구축하였다. 따라서 세포사멸 억제인자인 HDAC3 기능을 선택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암치료제 개발이 꼭 이루고 싶은 목표다.

❖ 신진연구자를 위한 한마디

암 정복을 위한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연구자들이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그 연구 결과도 무수히 많이 보고되고 있고,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다.

이번 연구 결과에서 보여지듯이 이번 연구는 수년 동안 수많은 연구의 반복과 수정을 진행하면서 인내의 시간이 필요했다. 우리나라의 많은 유능한 신진연구자들도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는 연구를 진행한다면 더 좋은 결실을 얻을 것이라 생각된다.

[용어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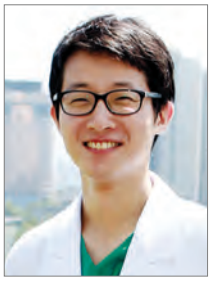
PDCD5(Programed cell death 5) : DNA 손상에 의해 증가해 암세포의 사멸에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는 단백질이나, 그 정확한 기전은 불분명한 상태였다.

세포사멸 (Apoptosis) : 비정상 세포, 손상된 세포, 노화된 세포가 스스로 자살해 사멸하도록 인체 내 입력되어있는 프로그램

HDAC3 (Histone Deacetylase 3) : HDAC1, 2, 그리고 8과 함께 HDAC Class I에 속하는 단백질로, 유전자의 프로모터 부위 히스톤을 탈아세틸화 시킴으로써 염색체의 구조를 변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하는 효소이다.

특별기고

마지막 인턴 세대



박성우
성형외과학 교실

의대를 졸업하고 인턴을 시작할 즈음 인턴 제도가 폐지될 거라는 소문이 돌았다. 의사가 되려면 당연히 거쳐야 할 제도라고 생각했는데, 새롭게 개편되면서 내년이나 내후년부터 잠정적으로 폐지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 간다는 내용이었다.

의과대학을 졸업할 즈음, 남자들 사이에서는 군대를 미리 다녀오면 돌아왔을 때 인턴을 거치지 않고 바로 레지던트를 할 수 있으리란 이야기도 있었다. 그래서 공중보건의로 군복무 하는 것을 선택한 친구들이 있었다.

'나 인턴일 적' 이야기는 한국에서 의사로 수련받았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추억이다.

교수님들은 '나 인턴일 적' 종이와 필름으로 병원 차트를 쓰던 때, X-ray 실에 가서 X-ray 를 찾았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빠지지 않고 듣는 이야기 중 하나로 삐삐도 있었다.

예전에 마취과 인턴들이 삐삐로 호출받을 때, 가장 늦게 오는 로젯 담당 레지던트가 야식을 샀다는 '인턴 경마' 이야기도 있었다. 어떤 이야기든 지금 세대 인턴으로서는 쉽게 와 닿지 않는 이야기이다.

인턴 제도가 없어진다는 소문을 들으니 인턴을 꼭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폐지될 제도의 마지막 세대로서 경험해 보고 싶다는 욕심이었다.

나 역시 '나 인턴일 적 말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며 향수에 젖어 볼 기회도 있지 않을까.

의대 6년을 거쳤어도 인턴을 시작하면 마치 병원에 생짜로 툭 내던져진 느낌이다. 수없이 외우고 공부했던 것들도 응급실에서 눈앞에 환자를 마주하면 머릿속이 새하얘지는 느낌이다.

아직 익숙하지 않은 바늘을 가지고 떨리는 손으로 환자 팔에 쑤욱 꽂는 새벽녘의 느낌. 인턴을 시작하면 모든 것이 맨땅에 내던져지는 느낌이었다.

인턴들은 의료진으로서 책임지는 위치가 아니다. 인턴이 잘못해도 그 잘못은 레지던트나 교수님에게 지어진다. 책임질 일이 없으니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힘들지 않다고 한다.

반대로 생각하면 책임질 위치에 서기까지 1년이라는 유예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배우라는 의미일 것이다.

환자를 제일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 인턴이다. 검사를 기다리는 환자 옆을 지키는 것도 인턴이다. 트랜스퍼를 따라가는 의료진도 인턴이다.

수술을 앞둔 환자와 수술을 끝낸 환자를 회복실 옆에서 보는 것도 인턴이다. 인턴에게 있어 제일의 덕목이 옵져베이션, 즉 관찰이라 한 연유를 알 것 같았다.

의사로서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기본이다. 환자의 마음을 이해하는 방법은 책으로 배울 수 없다.

환자에게는 치료도 중요하지만 병원에 입원하는 동안 혹은 수술 받기 전후 맞게 되는 자신의 감정과 변화하는 주변 상황 역시 중요하다. 환자를 보살피는 의사의 역량은 인턴 시절에 길러지는 것이다.

청춘 의사들이 병과 싸우느라 약해진 환자의 감성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 그것은 인턴 시절 1년뿐이다.

2011년~2016년 서울아산병원 성형외과 인턴, 전공의 수련을 받고 있다. 지난 9월 21일 인턴 의사의 좌충우돌 생존기 '인턴노트'를 출간해 '글 쓰는' 성형외과 의사로 세상에 첫 발을 내디뎠다.

교과탐방

응급의학과 교육엔 특별한 무엇이 있다

실습 최대 특징…다양한 임상실습 실행 가능

임경수
응급의학과 과장

응급의학과는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응급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이 있는 응급환자에게 양질의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부서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렇다면 응급의학과 교육은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

❖ 응급의학과 실습 교육 '눈길'

응급의학과 교육 중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은 실습이다. 다양한 환자들을 한 장소에서 모두 경험할 수 있고, 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술기들을 직접해볼 수 있다는 점이다.

응급의학과 실습은 elective(선택과목) 실습기간 1주와 4학년 전원이 나오는 서브인턴십 2주가 별도로 운영된다.

먼저 elective 실습기간에는 학생들이 인턴 업무를 경험하고, 부분적으로 직접 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CPR(심폐소생술) 등은 학생도 같이 참여하고, 스텝이나 전공의들의 미니강의에도 비교적 적극적으로 학생들이 같이 진료하면서 참여하도록 제공하고 있다.

서브인턴십의 경우 응급실에서 흔히 접하는 케이스(case)들을 같이 리뷰하면서 조별로 문제를 풀고, 고민해보는 시간으로 구성, 진행해 호평을 받았다.

실제 진료의 우선순위 정하기, 환자의 treatment goal(치료목표) 세우기, 어떤 상황에 귀가 결정을 하는지 등 교과서에서 배우지 못하는 것들을 다루면서 진행해 유익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 학생들 78.8% "만족"

이는 실습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2015년 의학과 4학년 Subinternship program 만족도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률 84.6%로 응답자의 78.8%[63.6%(만족), 15.2%(매우만족), 21.2%(보통)]가 응급의학과 매우 만족 또는 만족한다고 하였고, 불만족이나 매우 불만족하다는 의견은 없었다.

또 응답자의 87.9%가 이 실습의 장점으로 "기존의 임상실습 때와는 달리 많은 술기들을 직접해볼 수 있어서 좋았다"는 점을 꼽았다.

다만 45.5%가 프로그램 시행 시기의 변경이 필요하다(4학년 초반 등), 33.3%가 보다 체계적인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하다, 15.2%가 임상과목 추가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도 제시됐다.

❖ 응급의학과가 특별한 3대 이유

응급의학과가 특별한 이유는 ▲환자의 종합적 판단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 ▲국내 최고 여건이라는 점 ▲의사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는 점 등 크게 3가지다.

▲환자의 종합적 판단을 경험할 수 있다=현대의학의 발전 방향이 점점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어감에 따라 개개인의 환자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응급의학과는 응급실을 방문하는 중증 응급환자들에게 보다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응급처치를 제공하기 위한 학문으로 시작되었으며, 다양하고 복합적인 급성문제 또는 질환을 가진 응급환자들에게 치료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각 진료과들의 의견을 조율하여 시기 적절한 최적의 치료를 제공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국내 최고 여건=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교실은 일 평균 환자수 350명에 연 11만 여명의 응급환자를 치료하는 명실상부한 국내 최대 규모의 응급실을 관리하고 있다. 중증의 응급환자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치료하기 위한 응급중환자실과 응급 암환자들을 위한 긴급진료실, 소아응급환자들을 위한 소아응급실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유능한 응급의학과 의사를 양성함을 목표로 주임교수 이하 전 교수진들이 열과 성을 다하고 있으며, 매주 Staff lecture, 응급영상 Conference, Disease review, CPR case review, Journal review 등을 통해 학생과 전공의 교육을 하고 있다.

신입전공의가 들어오는 3~5월에는 신입전공의를 대상으로 하는 집중교육이 있어 응급의학 영역에 대한 교육은 국내 최고 여건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의사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학생 교육 중 특히 임상실습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본과 4학년 실습 마지막 2주 서브인턴쉽을 응급의학과에서 갖게 되는데 이 시간에 학생들은 당장 의사가 되면 주어질 많은 술기들을 익히고, 삶과 죽음이 오고 가는 생생한 의료 현장을 경험하게 된다.

교과탐방ACLS교육

특히 학생들은 실습기간동안 급성증상을 호소하며 응급실을 내원하는 환자들을 진료과 편견없이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훈련을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생명이 꺼져가는 심정지 환자들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 스스로 한 생명을 살렸다는 의사로서의 강한 자부심도 경험하게 된다.

응급의학과 이윤선 의국장은 "학생때 유일하게 야간근무를 체험할 수 있고, 삶과 죽음이 결정되는 순간 바로 옆에 있다는 것도 큰 특징이다"며 "최근 지원자가 증가하는 이유는 다른 과와 달리 정확한 퇴근시간이 보장된다는 점 등이 중요하게 작용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하였다.

또 "응급의학과는 병원외의 의료까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의료의 정책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며, 의사의 사회참여도 면에서도 응급의학과의 역할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 응급의학과 일반 강의 기본 내용 구성

▲ 응급의료체계 (Emergency medical system)
▲ 대량재해의학 (Disaster medicine)
▲ 소생의학 (Resuscitation)
▲ 응급심장학 및 전문심장처치 (Emergency cardiology and advanced cardiac life support)
▲ 외상학 및 전문외상처치 (Traumatology and advanced traumatic life support)
▲ 응급종양학 (Emergency oncology)
▲ 소아응급 및 전문소아처치 (Pediatric emergency medicine and pediatric advanced life support)
▲ 임상독성학(Clinical toxicology)
▲ 환경응급질환 (Environmental emergency)
▲ 중환자의학 (Critical care medicine)

미니인터뷰 | 응급의학과 손창환 교수

"응급실 걸어들어오는 환자, 경증이라는 생각은 금물"

손창환 교수

1. 학생들이 교육을 받으면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1) 감염주의

본인이 환자에게 감염원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또한 환자로부터 본인이 감염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환자 진료시 철저한 감염관리 원칙 준수가 필요하다.

2) 환자-의료진 (학생의사)간의 친밀관계 (rapport)

응급실로 내원하는 환자들의 대부분은 급성기 응급환자들이므로 환자 뿐만 아니라 보호자도 매우 예민해져 있다. 따라서 의료진 (학생의사)의 말이나 행동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므로 언행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2. 교육을 통해 반드시 기억했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면?

1) 기본 및 전문 심폐 소생술: 심폐 소생술은 의사로서의 기본 소양이다.

2) 응급 증상에 대한 병력청취 및 신체진찰: 응급실로 내원하는 주된 증상에 따른 기본적인 병력 청취와 신체 진찰에 대하여 이해한다.

3) 특수한 상황들에 대한 대처: CPCR(심폐소생술) 환자, DNR(소생금지) 환자, 주취 환자, 폭력 환자, 정신과적 응급환자들을 진료할 때 필요한 상황 대처 능력을 함양한다.

3. 학생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대표적인 내용으로 제시해 줄 부분이 있으시다면?

'눈 앞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응급실로 걸어 들어오는 환자는 경증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금물이다. 이들 중에서는 치명적인 중증 응급질환이 있는 환자들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환자를 진료할 때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환자가 호소하는 주증상이 치명적인 중증 응급질환일 수도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한다.

4. 응급의학과의 비전으로 제시해주실 내용이 있으시다면?

현대의학이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어 갈 수록 환자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치료하는 응급의학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이다. 또한 응급실에서도 대부분의 환자들이 높은 수준의 양질의 진료를 원하고 있는 만큼 향후 응급의학과의 역할은 더욱 더 커질 전망이다. 따라서 응급의학의 미래는 매우 밝을 것으로 기대된다.

5. 이번 메르스 상황을 지켜보시면서 느낀 점과 학생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국민들의 응급실 이용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응급실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추후 각 임상과에서 근무하게 될 여러분들이 응급실 과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응급실 환자 진료 시 또는 외래 진료 시에도 응급실 과밀화 해결에 일조하였으면 한다.

6. 기타 학생들에게 당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시다면?

응급실에서는 모든 임상과의 다양한 환자들을 접할 수 있는 만큼 실습 때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본인의 장래 (전공과 선택)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

의대소식

의학과 3학년 졸업여행 "추억을 만들다"

의학과 3학년 학생들이 지난 9월 30일(수)~10월 2일(금) 제주도로 졸업여행을 다녀왔다.

이번 여행은 선우성 학년담임교수 및 황승준, 심지연 교수가 인솔교수로 함께 참여하였으며, 좋지 않은 날씨가 아쉬웠지만 추억을 만들 수 있어 좋았다는 반응이다.

이번 여행에서 가장 즐거웠고, 기억에 남는 점으로 우도에서 황승준 교수, 학생들이 자전거를 빌려 탄 것과 마지막 날 화창한 날씨 아래 펼쳐진 우도 풍경 등이 제시됐다.

한동엽(의학과 3학년)학생은 "지난 예과수료여행 이후 동기끼리 다같이 가는 엠티가 한동안 없다가 오랜만에 모든 동기들과 여행갈 수 있어서 즐거웠다"며 "아직은 먼 미래지만 졸업 이후에 동기들과 다시 모이면 같이 꺼낼 수 있는 추억들을 만들고 온 것 같다"고 말했다.

의학과 4학년 학부모 간담회 개최

우리 의대가 지난 10월16일(금) 오후 6시부터 융합연구관 15층 라운지에서 의학과 4학년 학부모 및 재학생, 의과대학 보직교수, 학년담임교수, 학생지도교수, 주요 교실 주임교수 등 약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송재관 학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학년담임교수(황승준) 인사말 ▲주요 교실소개 ▲의사국가고시 준비 및 진로지도(채희동 학생부학장) ▲다과 및 간담회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교실 소개에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생리학, 인문사회의학 등에서 주임(대리) 교수들이 발표를 진행하여 만족도를 높였다는 평가다.

실제 이번 간담회에 참석했던 한 참석자는 "쉽게 들을 수 없는 주요 교실에 대한 소개를 들을 수 있어서 향후 진로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호평을 하였다.

건강칼럼

심혈관 질환 : 일교차 커지면 주의해야

야외 운동 시 주의사항은?

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
이철환 교수

일교차가 커지면 심혈관 질환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고혈압환자의 혈압은 계절변화에 영향을 받는다. 보통 여름철에 낮은 반면 찬바람이 시작되는 가을철을 기점으로 상승하여 10도정도의 기온 하강 시 혈압은 13mmHg정도 높아진다는 보고가 있다.

앞서 말했듯이 날이 차가워져 체감 기온이 떨어지게 되면 건강한 사람도 혈압이 약간 올라가게 되며 여름철에 비해 보통 겨울철 이완기 혈압이 3-5mmHg 정도 높아진다.

고혈압 환자 또한 혈압 약 복용유무와 상관없이 겨울철에 여름철보다 혈압이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이러한 혈압 상승은 뇌졸중, 심근경색증이나 협심증, 대동맥박리, 심부전증 등의 심혈관계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다.

❖ 환절기 아침 심장발작이나 뇌출혈 등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

갑자기 찬 공기에 노출 되면 우리 몸의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면서 말초동맥들이 수축하고 혈관저항이 상승하게 되면서 혈압이 올라가게 된다.

이로 인해 심장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고혈압 환자의 경우 혈압이 갑자기 올라가게 되어 뇌출혈의 위험에 노출되기도 하고 심장질환 환자의 경우 심장발작이나 협심 흉통이 악화되기도 한다.

또 밤사이 감소된 교감신경의 작용으로 우리 몸이 이완 상태에 있다가 잠에서 깨면서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여 아침에 심장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크게 되는데 많은 돌연사가 하루 중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이러한 이유라 할 수 있다.

❖ 차가운 공기에 갑작스런 노출을 피해야 하는 사람

추운 겨울날이나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 동맥경화증, 고지혈증, 당뇨병, 고혈압, 노인 등과 같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인자가 있는 사람 또는 심혈관질환을 가진 사람은 차가운 공기에 갑자기 노출되면 심혈관 질환이 갑자기 악화되거나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등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한다.

모든 질환이 미리 준비하고 주의를 하면 예방 할 수 있듯이 심혈관계 질환의 악화 또한 예방이 가능하다.

❖ 과음과 흡연한 후 아침 찬 공기 노출은 위험

심혈관 질환의 적이라 할 수 있는 과음, 흡연은 피하는 것이 좋다. 과음은 심방세동 등의 부정맥과 심근 허혈을 유발 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흡연 또한 담배 속의 니코틴, 일산화탄소 등의 물질들 때문에 혈관을 수축시켜 심장에 부담을 주고 심장이나 뇌로 가는 산소 운반 능력을 감소시키고 혈관 속의 노폐물을 증가시켜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고 악화시킨다.

이러한 과도한 음주와 흡연 후 다음날 아침 찬 공기에 노출은 그 어느 경우 보다 위험 할 수 있다는 것은 쉽게 이해될 것이다.

환절기에 과음과 흡연을 과도하게 한 경우 건강관리를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다음날 아침 등산이나 갑작스런 이른 아침 운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는 상황은 피하는 것이 좋다.

❖ 환절기 운동 이렇게

기온 차가 심한 환절기의 아침에 여러분이 특히 주의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앞에서 계속 언급하였다.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 운동이 중요하지만 일교차가 큰 환절기 야외 운동 시에 여러 가지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 심혈관계 위험인자가 있는 사람은 심장전문의 진료와 운동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운동을 시작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나이가 들수록 운동을 시작하려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시작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명심하자.

- 스트레칭 등 준비운동을 좀 더 많이 하고 시작한다.
- 일교차가 큰 아침에 반팔보다는 가벼운 보온이 되는 편한 옷을 입고하도록 한다.
- 과음과 흡연을 과도하게 한 다음날 갑작스런 아침운동은 되도록 삼가 한다.
- 갑자기 힘이 많이 소요되는 무산소 운동보다는 조깅, 자전거, 속보, 수영 등의 유산소 운동을 자신의 운동 능력에 맞게 적절한 범위 내에서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 여름철 운동을 전혀 하지 않던 사람이나 심혈관계 위험요인이 있는 사람은 무리한 운동을 하지 않는다.
- 운동 중 흉통, 호흡곤란, 가슴 답답함 등이 발생하였다면 심장전문의를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한다.

학생코너

들어는 보았나? '의림제'… 올해는 '의림맨'

있을건 다 있는 우리의대 축제의 모든 것

갓 대학생활을 시작한 신입생들에게 축제만큼이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공식적인' 학교행사가 또 있을까. 왁자지껄한 분위기, 연예인 초청 공연, 각종 동아리에서 운영하는 부스, 단연 대학시절의 꽃이라 할 수 있겠다.

연세대의 축제 '아카라카' 나 고려대 축제 '입실렌티' 는 워낙 크고 유명 연예인들도 많이 와서 타 학교 학생들도 표를 구하여 놀러갈 정도로 지지도가 있다.

우리 의대도 일반종합대학의 큰 규모 축제는 아니지만 있을건 다 있는 '작지만 알찬' 축제가 매년 한글날 즈음에 열리게 된다. 2일에 걸쳐 진행되는 우리 의과대학 축제의 이모저모에 대해 알아본다.

❖ '의림제' 시작은 이름부터

우리 의대의 공식적인 축제 이름은 '의림제' 이다. '아카라카' 나 '입실렌티' 같은 이국적, 혹은 세련된 이름은 아닌, 다소 고등학교 축제이름과 비슷한 '의림제' 는 초창기 선배들 때부터 써온 이름이다.

벌써 수십년동안 울산의대생들의 축제의 공식적인 이름이었지만 우리 울산의대생들이 축제 이름 또한 시시하게 넘어갈 일이 없지 않은가.

'의림제' 의 재미는 그 이름에서부터 시작한다. 바로 '의림제' 를 패러디하여 새롭게 축제이름을 선정하는 것이다.

여러 축제이름들이 경쟁을 하게 되고 그중에 투표를 하여

의림맨

선정하게 된다. 작년에는 김보성 의리를 패러디 하여 '으리임제' 이번년도에는 화제의 영화 '킹즈맨' 을 패러디하여 '의림맨' 이 축제이름이다. 축제이름에 따라 바뀌는 축제 포스터도 쏠쏠한 재미이다.

❖ 너 CF모델 해봤니? 난 뮤직비디오도 찍었어

우리 의대에는 연예인, 아이돌 빰치는 끼와 개성 넘치는 얼굴과 재능을 가진 소위 '의느님' 들이 많다.

의대생인데다가 그런 끼와 얼굴을 소유하고 있는데 CF나 뮤직비디오 하나쯤은 찍어줘야 하지 않은가. 그래서 찍는다. CF와 뮤직비디오.

축제준비위원회 학생들이 패러디하고 싶은 뮤직비디오와 CF를 선정하여 주로 예과1학년을 대상으로 영상을 찍고 피

CF(비욘드편)

CF(호식이두마리편)

나는 편집과정을 거쳐 축제 둘째 날에 상영하게 된다.

이렇게 탄생한 뮤직비디오와 CF는 이것을 보기위해 축제를 온다고 하는 선배들이 있을 정도로 웃긴데, 그것도 그럴 것이 뮤직비디오 속의 어설픈 춤동작과 CF 곳곳에 보이는 재치가 그 재미를 더하기 때문이다. 2pm의 '전쟁이야', '10점만점의 만점' 같은 뮤직비디오와 CF는 Neutrogena, 소녀시대가 나오는 The face shop광고 등을 패러디 했었다.

❖ 사제 간의 정을 쌓는 뜻 깊은 시간들

우리 의대생들의 축제는 단순히 먹고 노는 것에 끝나는 그런 축제가 아니다.

우리 의대 선배 교수님들을 초청하여 먼저 의학도의 길을 걷고 자기전문분야에서 업적을 남기고 계신 '대선배님' 의 조언을 듣는다.

또한 의대생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의대 졸업 후 진로 등 교수님께 궁금한 질문들을 하며 앞으로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는 시간을 갖는다.

홍석경 교수, 최진호 교수, 김소연 교수 등이 출연했고, 특별히 이번년도에는 박상형 교수도 출연해 눈길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교수들은 학생 시절 어떻게 공부했고, 인턴 레지던트생활은 어떻게 했는지 경험담과 선배로서 후배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들을 나누며 교감을 쌓는다.

지난해에는 6기 영상의학과 김소연 교수를 초청해 대담시간을 가졌는데, 가장 먼저 나온 질문이 "아름다운 미모의 비결이 무엇인가요?" 였다.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동안인 교수의 비결은 결국 공개되진 않았지만, 아마 모든 여학생들이 궁금해 하지 않았을까?.

올해는 학생기자단의 지도교수인 박상형 교수가 출연하여 연애이야기부터 앞으로의 진로와 인생의 꿈 등 학생들이 지금 당장 고민하고 생각하는 문제들에 대해 실질적인 조언들을 해 관심을 모았다.

특히 예과1학년 예쁜 신입생들을 노리는 남자선배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다.

❖ Luxury한 와인파티… 'UUCM 복면가왕' 까지

우리 의대생들의 축제는 첫째날 밤에 열리는 와인파티로 한층 더 품격이 높아진다.

아산교육관 1층 로비에서 열리는 이 행사는 울산의대 학생 모두들 와인잔에 담긴 향기로운 와인을 음미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된다.

학생회 학생들이 멋지게 차려입고 와인을 따라주고, 와인에 어울리는 까나페 등의 안주들을 먹으며, 깊어가는 가을밤을 즐긴다.

더불어 우리 의대 보컬, 베이스, 기타, 건반의 최고봉들이 와인파티 세션팀을 꾸려 가을밤의 와인에 어울리는 노래를 들려준다.

작년까지는 와인파티 때 세션팀의 노래를 듣는 것에만 그쳤지만, 올해는 TV프로그램 '복면가왕' 을 우리 의대 방식으로 패러디하여 'UUCM 복면가왕' 이 열리게 되어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 높은 호응을 얻었다.

동아리, 실력, 학년에 상관없이 참가할수 있었던 이번 복면가왕, 가려진채 가면 속에서 펼쳐지는 진실된 목소리의 주인공은 누구였을까?!

❖ 각종 먹을거리와 놀거리 가득한 동아리 부스

축제하면 빼먹을 수 없는게 바로 동아리별 부스이다. 우리 학교 많은 동아리 중에서 BOSS, 사랑두리, 시선, CMF, SOME, EXTIMA, 일몬사람, 헐침이 동아리 부스를 열게 된다.

축제사진

또 멀리 울산에서부터 찾아온 간호학과 학생들이 염통꼬치를 파는 부스도 개설해 관심을 모았다.

BOSS 부스에서는 블랙잭 같은 미니게임을, 사랑두리에선 복권을 사거나 타로점을 볼 수 있었다.

사랑두리 복권은 강매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당첨율은 매우 낮다. 하지만 이것도 나름의 추억이니 눈감고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시선 동아리는 출사해서 찍은 사진을 멋지게 현상해서 사진 전시회를 연다. 멋진 음악도 틀어주어 분위기 있게 사진을 감상할 수 있다. 혹시 정말 마음에 드는 사진이 있으면 구입도 가능하니, 빨리 들려 사진을 감상하는 것이 포인트다. 늦게 가면 멋진 사진들이 이미 팔려 구입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CMF 부스는 기독교동아리의 특색을 살려 예수님과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 준다. 더불어 달콤한 치즈케이크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였다.

오케스트라 동아리인 SOME에서는 부침개, 고추전과 막걸리를 파는 전통주점을 연다. 가락시장에서 공수해온다는 부침개가 정말 일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평소에 혹시 골탕 먹이고 싶은 친구가 있는가? 그 친구 데리고 EXTIMA의 물풍선던지기 부스로 가자. 500원만 내면 친구얼굴에 물풍선 하나를 던진다. 재밌게 놀다보면 어느새 깜찍한 물풍선이 아닌 물바가지로 붓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한다. 흠뻑 젖는 것은 기본.

어제 와인파티로 뒤집어진 속은 해결할 수 있는 곳도 관심을 모았다. 바로 일본라면 부스. 콩나물라면, 해장라면, 계란라면, 치즈라면 별의별 라면은 물론 김밥도 준비되어 해장과 점심을 그 자리에서 모두 해결한다.

마지막으로 헐침부스! 영화동아리인 헐침에서는 매해마다 다양한 먹을거리로 학생들의 지갑을 공략했다. 치즈불닭볶음면, 와플, 레모네이드, 호떡 등 축제의 즐거움을 더해주는 맛있는 간식은 우리의 식욕을 폭발시켰다.

김지애 학생편집위원은 "이번 축제는 선배로 참여해서 그런지 너무 재미있었다"며 "예과 1학년때 새로운 선배들을 많이 만나면서 긴장 속에서 축제를 보냈던 것과는 달리 귀여운 후배들과 만나는 자리는 너무너무 즐거웠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축제에 꾸준히 참석하여 귀여운 후배들도 더 많이 만나고 싶다"며 "UUCM 축제가 나날이 발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설문조사결과] 2015UUCM축제 Top3코너

(참여인원 12명, 카카오톡 설문지 이용)

순위	UUCM축제 Top3
1위	뮤직비디오 CF (7표)
2위	각종동아리공연 (SOME EXTIMA SOME) (3표)
3위	헐침영화, 연극 (2표)

※ 본 코너는 학생위원들이 직접 제작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보다 나은 교육 의견 수렴 및 각 교육과정에 긍정적인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울산대학교 발전기금 약정서

▌정보동의 ※ 정보동의 확인은 필수입니다. □에 체크(√) 해 주십시오.

□ 동 의 함	약정서에 기재된 개인정보와 기부금 납입사항은 기금관리를 위하여 보존되며 기부금 영수증 발행과 기부자 관리용도로만 사용됩니다.

▌기부자 정보 ※ 이 약정사항에 대해 비공개를 원하실 경우 체크(√) 해 주십시오. □ 비공개 원함

기 부 자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주민(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신분에 한하여,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 화 번 호		
이 메 일		
기부자 주소		
기부자 구분	□ 일 반	□ 기 업
	□ 동 문[학과: 입학년도:]	□ 학부모[학과: 입학년도:]
	□ 교직원[해당부서(학과):]	□ 단 체

▌약정내역 ※ 특정 부서에 지정기탁하시는 경우, 기탁금 중 10%가 일반기금으로 편입됩니다. (장학금 제외)

약 정 액	원(₩)		
기 금 용 도	□ 일반기금	울산대학교에 기금 사용용도를 위임하는 기금입니다.	
	☑ 지정기금	부서: 의과대학	용도: 의대 일반기금( ), 의대 연구기금( ), 장학금( )
		기부하시고자 하는 부서와 용도를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예) 부서: 대학 전체, 대학, 전공, 연구소 등 / 용도: 장학, 부서위임, 연구, 특정 목적기금 등	

▌납부방법 ※ 일시불과 분할납부 중 하나를 선택하신 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일 시 불	기부예정일	년 월 일 까지 납부		
	거래은행	□ 경남은행 540 - 07 - 0174998	□ 국민은행 661 - 01 - 0514 - 551	□ 농협 1168 - 01 - 075861
		□ 외환은행 038 - 13 - 44809 - 1	□ 신한은행 100-014-657050	예 금 주 울산대학교
분 할 납 부	□ 자동이체 (CMS)	약정금액	매월 원(₩)	
		기부기간	년 월 부터 년 월 까지 (총 회)	
		이 체 일	□ 15일, □ 25일	거래은행
		예 금 주		계좌번호
		CMS는 울산대학교가 금융결제원에 자동이체 출금을 의뢰하는 방법입니다. 직접은행에 가지 않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송금 수수료가 없습니다.		
	□ 급여공제	약정금액	매월 원(₩)	
		기부기간	년 월 부터 년 월 까지 (총 회)	
		이 체 일	15일	울산대학교 교직원만 해당됩니다.

위의 내용과 같이 울산대학교 발전기금모금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기부(약정)자: (인)

▌기부금 관련 문의

울산대학교 대외협력팀Tel. (052) 259 – 1010,1021/ Fax. (052) 259 – 1012 / Mail. uoufund@mail.ulsan.ac.kr

울산대학교 UNIVERSITY OF ULSAN

울산대학교 발전기금을 통한 의과대학 후원

발전기금 참여	– 별첨1 「울산대학교 발전기금 기탁(약정)서」 작성후 우편 또는 Fax로 전달 가능합니다. – 무통장 입금 : 금융기관을 통해 온라인으로 기부 가능합니다. (약정서 안내 참조) – 자 동 이 체 : 은행에 가지 않고 지정한 계좌에서 매월 일정금액 기부 가능합니다.
발전기금 용도 (약정서에 선택 표시)	– 의과대학 **장 학 금** : 의과대학 학생들의 장학금 용도로 사용됩니다. – 의과대학 **위 임** : 의과대학 관련 기타 발전기금 용도로 사용됩니다. – 의과대학 **연구목적기금** : 연구 등 특정 목적에 따라 사용됩니다.

<대학발전기금(법정기부) 세제혜택>

세제혜택 과정

기부금 납부	영수증 수취	· **개인:**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 · **법인:** 기부금으로 회계처리 후 법인세 신고 시 제출

발전기금 기부에 따른 세제혜택

개인기부 (개인, 개인사업자, 단체)

- 공 제 방 법: 세액공제

- 세액공제액

· 3,000만원 이하: 연간 기부금의 15%

· 3,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기부금의 15% + 3,000만원 초과분의 25%

예)10 만원 기부: 10 만원 × 15% = 1만 5천원

100 만원 기부: 100 만원 × 15% = 15만원

4,000만원 기부: 3,000만원 × 15% + 1,000만원 × 25% = 475만원

- 관 련 법: 소득세법 제34조, 소득세법 제59조의 4

법인 (주식회사, 법인단체)

- 공 제 방 법: 손금인정(비용처리)

- 손금산입한도: (연간소득금액 - 이월결손금액) × 50%

- 관 련 법: 법인세법 제24조

아산사회복지재단 서울아산병원 후원(약정)서

☐ **무기명 후원 희망 :** 무기명 후원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성명(사업체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E-mail**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후원자님의 소중한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가. 기부 영수증 발행

나. 감사서신 발송 및 후원 결과 보고

다. 개인 후원 현황 및 EVENT 안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후원(약정)서 내 인적사항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수집된 개인정보는 후원 종료 후 5년까지 보유합니다.

본인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_____ **(서명)**

후원 용도(선택)		☐ 불우환자지원기금	☐ 교육기금	☐ 연구기금
		☐ 의료균형발전기금	☐ 병원발전기금	☑ 기타
		세부내용 울산의대 교육연구기금		
후원방법(선택)	☐ **일시후원**	입금자명	후원금액	원
	☐ **정기후원**	입금자명	월 후원금액	원
		이체기간 년 월 ~ 년 월 (개월)		
기타 사항				

위와 같이 아산사회복지재단 서울아산병원에 후원을 약정합니다.

년 월 일

후원자 _____ **(서명)**

서울아산병원

서울아산병원 발전기금을 통한 의과대학 후원

발전기금 참여	- 별첨2 「아산사회복지재단 서울아산병원 후원(약정)서」 작성후 우편 또는 Fax로 전달 가능합니다. - 무통장 입금 : 금융기관을 통해 온라인으로 기부 가능합니다. ※ 서울아산병원 지정계좌 **(외환은행)175-13-06158-7 예금주 : 아산사회복지재단** - 자동이체 : 은행에 가지 않고 지정한 계좌에서 매월 일정금액 기부 가능합니다.
발전기금 용도 (약정서에 용도 기입)	- 후원(약정)서 용도(선택) 세부내용 : '울산의대 발전기금'기입

<서울아산병원(지정기부) 세제혜택>

1. 세제혜택

1) 법인이 1억을 기부할 경우

① 법인 정보(예시)

매출액	비용	지정기부금	당기순이익	비 고
15억원	12억원	1억원	3억원	세제혜택 : 소득금액의 10%

② 세금감면효과 비교

구분	미 기부	기부시
소득금액	3억원(공제액 : 없음)	2억 7천만원(공제액 : 3천만원)
법 인 세	4천 2백만원	3천 5백 4십만원
세금효과	-660만 원	

2) 법인세 설명

① 미 기부시

= 2천만원(2억 * 10%) + 2천 2백만원 (1억원 * 22%) = 4천 2백만원

② 기 부 시

= 2천만원(2억 * 10%) + 1천 5백 4십만원 (7천만원 * 22%) = 3천 5백 4십만원

2. 기타사항

1) 법인 세율 : 소득금액 2억 이하는 10%, 2억 초과는 22%

2) 당해년도에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한 기부금은 5년간 이월 공제 가능

의대소식

2016학년도 의예과 수시모집 경쟁률 전년대비 증가

입시설명회 개최…논술고사 11월 14일 예정

2016학년도 의예과 수시모집 경쟁률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23일(수)까지 마감된 수시모집 결과 일반전형(20명 모집)의 경우 1,413명이 지원해 70.65 : 1(전년도 경쟁률 69.55 : 1)를 기록했다.

또 지역인재 특별전형(4명 모집)의 경우 132명이 지원해 33.00 : 1(전년도 경쟁률은 31.00 : 1)을 기록하며, 전년도보다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우리 의대 의예과 수시모집 논술고사는 11월 14일(토) 오전 9시 잠실고등학교에서 치러질 예정이다.

일반전형으로 16명을 선발하는 정시모집 인터넷 원서접수는 2015년 12월 24일(목)부터 12월 30일(수) 오후 6시까지이며, 제출서류 도착일은 2016년 1월 5일(화) 오후 6시까지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의대 홈페이지(www.medulsan.ac.kr)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우리 의대는 지난 8월 21일(금) 오후 5시 의대 1층 강당에서 2016학년도 입시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에는 약 70명의 수험생 및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 설명회에서는 우리 의대에 대한 소개 및 의과대학에 대한 생활소개, 2016년도 입시전형에 대한 소개, Q&A시간 등을 진행해 참석한 학부모 및 수험생들의 다양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자리로 마련돼 호평을 받았다.

우리 의대, '전임교원 1인당 교내 연구비' 1위 기록

대학알리미 '2015년도 8월 공시' 통해…전국 의과대학 연구비 수혜실적 2위 기록

우리 의대가 '전임교원 1인당 교내 연구비' 1위를 기록하였다.

대학정보공시센터 대학알리미가 '2015년도 8월 공시'를 통해 전국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의 연구비 수혜 실적 중 '전임교원 1인당 교내 연구비'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번 분석결과 우리 의대는 2,600만원대로 가장 많았고, 연세대가 1800만원대, 이화여대 의전원이 1400만원대로 조사됐다.

연구비 수혜 실적으로는 연세대가 ▲교내 연구비 68억원 ▲중앙정부 연구비 431억원 ▲민간 324억원 ▲외국 2억2000만원 등 총 827억원으로 1위를 기록하였고, 그 다음으로 우리 의대가 ▲교내 연구비 157억원 ▲외국 14억원 등 총 771억원의 연구비로 2위를 기록하였다.

이어 가톨릭대 617억원, 성균관대 445억원, 서울대 351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임 교원수는 가톨릭대가 78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우리 의대가 605명으로 2위를 기록하였다.

뒤이어 인제대 601명, 한림대 511명, 성균관대 478명, 서울대 473명 등의 순이었다.

한편 수혜 실적 자료기준은 2014년 1월 1일~12월 31일, 전임교원 부문의 경우 2015년 4월 1일 기준이다.

편집위원회 위원장 : 임영석
편집위원회 위 원 : 김승후, 김남국, 도경현, 문덕복 박상형, 이주용, 정석훈, 허진원
학생편집위원 : 최명은, 박소희, 정창진, 조성윤 김지애
객원기자겸 홍보자문위원 : 김영신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UNIVERSITY OF ULSAN COLLEGE OF MEDICINE

우리 의대의 **역사**를 기다립니다

울산의대의 지난 26년과 관련된 기록물을 모집합니다.
울산의대 홈페이지에 오픈된 디지털전시관에 보관하여 구성원을 포함한 울산의대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과 지나간 시간들속에 남겨진 울산의대의 발자취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관련 기록물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대　　상: 울산의대를 아시는 모든 분
기　　한: 연중 상시
모집 내용: 울산의대 관련 모든 기록물(사진, 영상, 책자 등)
선　　정: 울산의대 홍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시 여부 결정
담 당 자: 울산의대 교학행정국 이정현, 02-3010-4211, jaylee0131@ulsan.ac.kr